

우리밀 살리기 운동

최 성 호

구례 우리밀 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 대표

1990년 한국가톨릭 농민회 1세대들이 대전 가톨릭농민회 회관에 모여 고향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 1) 더불어 사는 운동 (도시와 농촌)
- 2) 생명운동 (무농약,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
- 3) 우리밀 살리기운동 (종자 30만가마 확보)

을 목표로 민주화 운동과 농민 권익 투쟁을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밀 종자 14kg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200평 밭에 밀을 파종하였다. 이때는 수입밀가루 99%정도를 각 가정에서 애용하였고 가격 차이는 6배 차이로 인해 수요가 줄면서 생산농민들이 밀 파종을 하지 않아 종자 구입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90년대 수입 개방의 시대에 구례에서는 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오이생산이 평당 5만원의 고소득을 올린 반면 우리밀은 1평당 1,500원의 수익 밖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밀 생산을 거부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농민 운동을 하면서 변화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농민회원들과 광의면장을 설득하여 우리밀 생산의 필요성을 교육하게 되었다.

밀 수입이 350~400만톤(1억 가마/40kg)가 들어오고 우리밀보다 6배 싼 가격으로 수입된 밀은 우리나라 밀가루 시장을 100% 장악해 버렸다.

구례 지리산 산골 구만리 200평 밭에서 자란 밀 싹이 돋아나면서 수입밀과 우리밀 경쟁은 시작 되었다. 14kg에서 시작된 우리밀은 200~600가마(40kg) 생산이 늘어나면서 우리밀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제분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옛날 물레방앗간 소형 제분 시설을 찾아보았으나 그 흔적마저도 없었다. 대한제분, 동아제분 등 대형 수입밀 제분 회사들은 수백억 규모의 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소형제분 공장시설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자본도 없고, 제분에 대한 경험도 없고, 많은 고민을 하던 중 광의면장으로 부터 1읍면 1특품사업단 사업을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고 회원들과 회의를 하여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전남도청으로부터 우리밀은 특품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는 즉시

전남도청 특품사업 담당자를 만나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 하였으나 거절되어 매일 찾아가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위하여 사업단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눈물어린 호소를 하여 5번 만에 사업이 확정되어 총 사업비 1억4천 만원(보조9천만원,자부담5천만원)으로 창고 200평, 제분시설, 국수기계, 누룩기계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품사업단을 만들고 자부담 5천만 원을 조성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다. 50만원 100만원도 부담하기 힘들어 공장을 신축하는데 조합원이 나와 일하는 노동의 대가를 출자금으로 자부담을 만들어 나갔다.

1993년 곡물 분쇄기로 통밀가루를 생산하여 전국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 납품을 시작 하였으나 밀가루의 찰기가 부족하고 거칠어서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고 1년 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언론매체에서는 우리밀에 대한 홍보가 계속되었다.

이후 1994년 3억을 투자하여 제분 롤러밀 2대, 혼들 체 4대를 설치하여 15년간 제분을 하였다.

우리밀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의 제1구례공장, 제2무안공장, 제3합천공장, 제4정읍공장, 제5아산공장에서 우리밀 제품을 생산 하였으나 1997년 I.M.F 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면서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부도나면서 외부자본에 의존했던 공장들이 다 폐쇄 되었다.

제1구례공장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산, 가공, 유통 사업을 우리 힘으로 전환하면서 제2의 우리밀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동안 전국 우리밀살리기운동으로 부터 위탁 가공만하는 우리 공장으로서선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 수매.가공. 판매를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01년은 우리밀 생산이 거의 중단되고, 2002년 2,500가마, 2003년 5,000가마의 우리밀 생산이 다시 시작 되었다. 이러한 생산조직의 저변확대와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우리 공장에서는 2007년 자체부담금 11억5천 국.도 지원금 8억5천,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규격화하여 1일 제분 300가마/40kg 1년에 4,000M/T 제분 시설을 갖추면서 밀가루 품질을 향상 시켜 수입밀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우리밀 공장은 영농조합원 43명이 참여하고 15명의 일터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으며, 구례 농민 400명과 수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민의 소득을 높이며 지역민을 고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 개방은 우리나라의 자원을 이용 못하게 하고 자원을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 결과적으로 농업이 몰락하게 된다.

이 대가는 수입 농산물을 선호하던 도시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고 지역 경제가 파산 될 것이다. 젊은이는 도시로, 농촌은 고령화로 공동화 되어 건강한 먹 거리를 일부 수입에 의존

하게 되어 결국 소비자의 먹 거리를 위협받고 외화 유출로 인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밀 공장은 매우 중요하다. 수익이 창출되면 모두 기업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공유하는 마음으로 우리공장의 이익 10%는 생산 농민들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단순히 밀가루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농민의 땀과 희망 그리고 정성을 담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함으로 도,농 공동체를 실현 하고자 한다.

곡물의 생산은 자원이다. 햇빛, 공기, 물, 흙, 노동력이 제공되면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농민들은 이득을 창출하게 된다.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이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수입밀을 이용하여 과도한 부를 독점화함으로써 우리밀 생산 기반이 붕괴 되었다.

그러나 우리공장은 우리밀의 생산, 가공, 유통을 일원화 하여 비록 수입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밀 살리기 성장 동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애국적 소비자들이 가꾸어 낸 힘이라 생각한다.

우리 공장은 정부 밀 정책이 없던 20년 동안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품질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서 수입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다.

지구촌의 기상재해로 식량부족과 국제 곡물 가 폭등으로 인한 먹 거리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20년의 경험을 살려 묶어진 2모작 땅에 밀을 심어 식량 무기화에 대비 할 것이다.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하여 생산, 가공, 유통 이익이 지역과 농민에게 돌아가는 모범된 공장을 가꾸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다짐한다.